

中國古城保護運動의 展開와 北京의 都市計劃

한동수

(清華大學 建築學院 박사과정)

1. 序言

우리는 北京을 이야기 할 때마다 '위대한 中華人民共和國의 首都', 혹은 '역사가 유구한 文化名城', 혹은 '6대古都의 하나', 혹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도시계획의 걸작'등과 같은 고상한 어휘들을 들먹인다. 이와 동시에 北京의 都市面貌을 묘사하려고 하면 쉽사리 '首都風貌', '古都風貌', '古城風貌' 등의 입에 달은 수식어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맥락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실제로는 핵심적인 내용이나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北京의 고성 보호에 관한 논술들은 대부분 논술자 자신의 감상 내지는 지필묵의 유희에 국한되기 일쑤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러한 주장들은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北京을 위한 실질적인 수법이나 구상을 제기하고 있지 못하며 단지 꿈에 젖은 이상을 뽐낼 뿐이다.

80년대 초반 개혁 개방의 정책을 취하고 난 뒤, 중국 사회는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중국의 도시화 현상은 대단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도시의 수량은 최근 10여년 동안 거의 1배 가량이나 증가하여 그 수량은 이미 570여 개에 이르고 있다(인민일보, 1994년 12월 6일). 그 결과, 대다수

歷史名城의 風格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현대식 고층 빌딩이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街路들을 대신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들은 고층건물을 장식하는 하나의 盆裁로 전락해 버렸다. 北京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심은 역사가 가장 오랜 지역으로써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환경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소재지가 되었으며, 새 것과 낡은 것, 서로 다른 기능, 군중들 사이의 긴장감들이 서로 충돌하는 가혹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후 北京의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대적인 도시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자신의 역사 맥락은 신속히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조건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만 北京은 적당한 보호와 발전을 얻을 수 있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관련 사건과 문헌의 회고 방식을 통하여 北京古城保護의 본질과 문제를 토론해 보고 몇 가지 견해를 밝혀 보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워진 감자로 떠올랐던 경주 보호와 연계되어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古城保護運動의 擡頭와 그 本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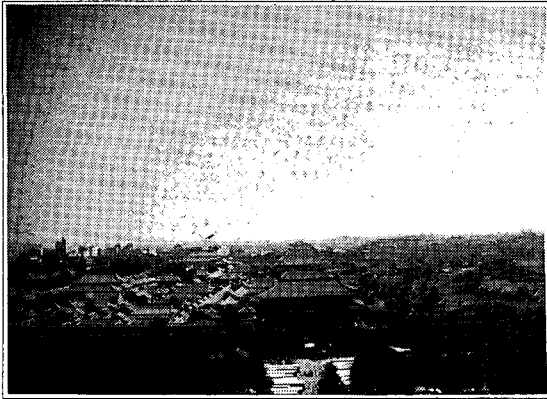


사진 1. 경산에서 남쪽으로 바라다 본 북경시 전경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10년간에 걸친 文化大革命의 혼란은 중국 민족과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 가운데 가장 뼈아픈 손실은 당연히 문화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써 대량의 文化古城, 古建築, 古遺址, 文物들이 철거되고 개조되었으며, 산산조각이 났다. 또한 도시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루어진 마구잡이 식의 건설로 생태계통과 기능을 마비시켰다. 1978년 12월에 소집된 중공 제11기 3차 中全會는 10여년에 걸친 文化大革命의 혼란을 극복하고 승리했음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중국은 이때부터 개혁과 개방의 전주곡을 울리며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새로운 역사시기에 진입하게 되었다(段柄仁, 1989, pp.1). 그 뒤, 중앙 정부는 1980년 5월 17일에 발표한 <歷史文物保護工作에 관한 國務院의 통보>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최근 10년간 林彪를 비롯한 4人邦은 극좌 노선을 추구하고 극좌사조를 선동하였으며 역사 허무주의를 고취시키는 한편, 法制를 심각하게 문란시켰다. 이 때문에 조국의 歷史文物은 혼란에 휩싸여 수많은 歷史文物들이 파괴되었다. 어떤 지역은 副業을 명목으로 옛무덤을 마구 파냈으며, 일부 박물관에서는 체제가 엉클어져 문물이 유실되고 도난 당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많은 지



사진 2. 경산에서 북쪽으로 바라다 본 북경시 전경

역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우리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며 文物에 대한 파괴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문건에서는 文化大革命 시기에 이루어진 문물 자체에 대한 파괴와 그 보호를 위한 전략상의 부작용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실상 文化大革命이 끝난 뒤, 비록 각 부문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회복하고 문물보호에 관한 법률이 속속 제정(뒤에 나오는 고성보호에 관한 연표를 참조할 것)되기는 하였으나 도시계획, 기본건설, 관광사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존의 도시 골격과 新建築 사이의 부조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설을 명분으로 한 문물파괴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文物建築 자체만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은 이미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 1982년, 國務院은 古城의 風貌 및 文物을 보호하기 위하여 1차로 24개에 달하는 歷史文化名城의 명단¹⁾을 공포했다. 그 명단 가운데 우선 北京에 관한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로 지정된 도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북경, 승덕, 대동, 남경, 소주, 양주, 항주, 소흥, 천주, 경덕진, 곡부, 낙양, 개봉, 강릉, 장사, 광주, 계림, 성도, 준의, 곤명, 대리, 랑살, 서안, 연안 등 모두 24개도시.

“燕과 薊의 중요한 鎮, 遼代의 剖都, 金, 元, 明, 淸代의 古都, 지상과 지하의 文物이 매우 풍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歷史文化의 古城이다. 천안문, 인민영웅기념비, 모주석기념, 고궁, 북해, 천단, 이화원, 13릉, 만리장성, 그리고 북경원인의 유지 등 혁명과 역사의 중요한 문물이 있다.”

나머지 명단의 도시들도 北京과 동일한 내용, 즉 역사연혁, 도시의 특징, 주요 문물의 순서로 그 指定意義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도시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국의 각 지역 내지는 중국 전체로 볼 때 정치, 문화 혹은 경제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名城의 보호라고 하는 이 같은 조치는 歷史文物의 個別保護에서 群體保護로, 또 정지된 문물의 보호에서 도시의 전통 풍모에 대한 발전과정적 보호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思考의 일대 개혁을 의미한다(중국역사문화명성연구회, 1987, pp.2). 이 문헌에서 제기한 내용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다:

① 省, 市, 自治區의 城建部門과 文物, 文化部門의 관련 기관들은 각기 자신들의 역량을 조직화하여 소재 지구의 歷史文化名城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이 통지를 접수한 뒤 1년 안에 歷史名城計劃說明書, 圖面(1만분지 1의 비례), 그 도시에 있는 重點文物과 名勝古蹟의 명단을 포함하는 보호계획서를 제출하여 城市設計總局과 國歌文物事業管理局의 심사를 받는다.

② 財政部門 기관의 동의를 얻어 1982년부터 양주, 경덕진, 소흥등 3개 도시는 각기 工商利潤의 100분의 5를 각출하여 보수 및 건설 자금을 확충하는 원천으로 삼는다(나머지 도시들은 이미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거나 또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음).

이 두 가지 조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당시의 환경 속에서 하나의 절박한 임

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였으며 사회 전체가 아직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여 충실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관련 부문이 보호 계획을 만들어 내라는 요구 등은 불합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文物建築과 歷史地區에 대한 국제회의(ICOMOS)에서 제정된 〈歷史都市와 都市化 地域의 保護에 관한 憲章〉보다도 5년이나 빠른 것이었다. 여기서 중국에서 제기된 歷史文化名城의 지정에 관한 문건과 ICOMOS가 정한 헌장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주민 참여의 보호 작업을 비교적 강조하고 전자는 관주도의 강제성을 띤 보호작업이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는 古城保護를 위한 일선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北京에서 진행되었던 菊兒胡同의 주거지 개조 작업 역시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당시 중국의 관련 부문은 이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뒤를 이어서 같은 해 11월 19일에 열린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이 통과되었고, 古城保護作業은 名文으로 규정되었다²⁾. 중간에 일정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1992년 4월 30일, 국무원은 〈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細則〉을 비준하였다. 같은 해 5월 5일에는 國家文物局令 제2호가 발표되었다. 이 문건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관건이 되는 규정은 바로 제2장 文物보호단위의 제12조 文物보호단위의 주변 규정과 건설제한지역에 관한 것으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地區性的 보호개념이 명문화되었다. 또한 같은 장 제10조에는 건축제한선 안에 있는 新, 舊建築 사이에는 반드시 그 風格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8장의 제14조는 歷史文化名城의 보호관리방법을 규정하였다.

돌이켜 보면 중국에서 文物보호의 시작은

2) 이 법규의 제2장은 文物보호단위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제8조가 고성보호에 관한 것이다.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역사문화에 대한 보호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또한 중국 사회의 古蹟과 古城保護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와 관련된 각종의 학술 기구들³⁾이 조직되어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도시 건설과 부동산개발 등으로 인한 古城風貌의 파괴는 그 속도가 아주 빠르고 범위가 대단히 넓다. 古城의 보호 작업은 미치는 범위가 대단히 넓고 아주 복잡하다. 이 점은 보호의 일선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歷史文化名城의 보호라고 하는 그 자체는 도시와 촌락, 스카이라인, 도심, 이웃, 가로, 경관, 건축물, 그 밖의 잡다한 요소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건축물을 보호하는 효과보다도 그 위력이 훨씬 더 크다.

개혁 개방의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건축가의 창작 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건축 형상이 천편일률적이던 현상은 이때부터 점차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건축 창작의 경향은 오히려 하나의 극단에서 또다른 극단으로 흘러갔다. 과거에는 大屋頂⁴⁾의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경사지붕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민족 형식이라는 말조차도 감히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도처에 대옥정을 올린 건물들이 여봐란듯이 북고주의의 경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건축 설계의 추세로 볼 때 우리가 미래의 北京面貌를 그려본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대다수 歷史名城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風貌는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밖에 중앙 정부에서는 古城保護를 일종의 愛國主義教育의 일환으로 삼았다. 1982년 2월 8일, 국무원은 <우리 나라 歷史名城의 保護에 관한 지시>라고 하는 문건을 비준하여 國家建設委員會등의 기관으로 보내면서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歷史文化名城을 保護하는 것은 유구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발양함에 있어서 愛國主義 精神文明을 실천하고 歷史教育과 國政教育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歷史文物은 이 방면에서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文物報, 1995.1.1.)

심지어 최근에는 저명한 과학자의 한 사람인 錢學森 교수가 중국은 응당히 山水都市論을 들고 나왔다. 그가 제창한 山水都市는 첫째, 중국의 문화풍격을 가지고 있고 둘째, 도시 미학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시민 생활과 업무, 오락 등의 기능이 과학적으로 조직화된 도시이다(人民日報海外版, 1995.3.22.).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歷史名城의 특성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최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일치하는 것이다. 산수도시론의 개념은 그가 1990년 7월 31일 北京 清華大學의 吳良鏞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거론했던 것이지만 일찍이 1950년대 <人民日報>에 실린 짤막한 글에서 중국고전원림과 전통 산수화를 하나로 결합시키자는 관점을 밝힌 바 있었다(鮑世行, 1994, pp.251-252). 이것은 梁思成, 吳良鏞, 貝聿銘⁵⁾ 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산수 도시라고 하나의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그 발명권은 응당히 위에 언급한 몇 사람의 것이다(鮑世行, 1994, pp.258). 吳良鏞 교수는 1986년 桂林의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에 적합한 도시 유형을 확립하기 위하여 몇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같은 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그는 “桂林-山-水-城”이라는 패턴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先賢들이 그린 그림을 논할 때 “山得水而活”, “水得山而壯”라고 했는데 그는 여기에 “城得山水而靈”이라는 구절을 보탤고 “山-水-城” 3자가 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예를 들어 古都學會나 歷史名城專門家委員會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4) 대옥정은 중국의 전통 건축에서 사용되는 지붕 형식을 가리킨다. 우리말로로는 한옥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가 I.M.Pei의 중국이름이다.

결국, 중국의 古城保護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특수한 상황, 즉 文化大革命이라는 사회적 배경하에서 대두된 것이다. 이후 여러해 동안에 걸쳐 누적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古城保護는 文物法과 같은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같은 제도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하여 최근에 제기된 산수도시의 추상적인 관점으로까지 발전하였고, 다시 환경보호개념과 애국주의 사상관이 결합된 종합적인 관념으로 전환되었다.

◆고성보호에 관한 주요일지◆

- 1950년 7월 6일 중국인민정부 국무원은 文物 건축보호에 관한 지령을 공포함
- 1961년 3월 4일 文物보호종합조례 공포
- 1964년 5월 31일 ICOM는 베니스 헌장 의결
- 1976년 11월26일 UNESCO는 나이로비 결의를 통과시킴
- 1980년 5월17일 역사문화보호작업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 1982년 2월 8일 국무원이 비준하여 국가건설위 등의 부문에 보낸 歷史文化名城保護에 관한 지시통고
- 1982년 11월19일 중국인민공화국 文物보호법 공포
- 1983년 3월 9일 城鄉建設環境保護部의 역사문화名城 계획작업에 관한 통지
- 1983년 中國古都學會 성립
- 1986년 5월 3일 전국 24개 歷史文化名城의 관련 지도자 및 전문학자들의 첫 번째 연합회의 개최
- 1986년12월 8일 국무원이 비준하여 건설부, 문화부에 보낸 2차 지정분 國家歷史文化名城 명단6) 보고에 관한 통지
- 1987년 워싱턴 헌장 제정
- 1987년 UNESCO 세계문화유산공약 공포

6) 2차로 지정된 도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상해, 천진, 심양, 무한, 남창, 중경, 보정, 평요, 호화호트, 진강, 상숙, 서주, 회안, 영파, 흡현, 수현, 호주, 복주, 장주, 제남, 안양, 남양, 상구현, 양변, 조주, 량중, 의빈, 자공, 진원, 여강, 일객척, 한성, 유림, 무위, 장액, 돈황, 은천, 객심등 모두 38개 도시.

- 1992년 5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文物보호법 실시, 세부규칙 공포
- 1994년 歷史文化名城專門委員會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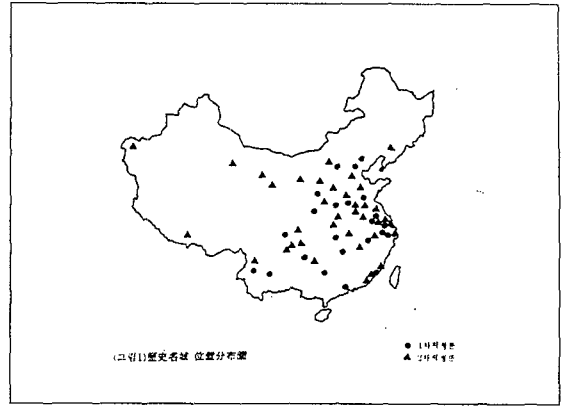


그림 1. 歷史名城 位置分布圖

3. 最近 北京이 直面한 몇가지 難題

古城의 보호는 營造技術과 같은 것에 대한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도시계획, 지정, 재세, 법률,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곤경에 쉽게 빠지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가지 문제의 해결로서 古城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중국의 古城保護政策의 지휘하에 오늘날 北京이 처해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法律規程과 現實執行 사이의 距離感

현재 대다수 歷史文化名城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충격은 바로 부동산 투기와 개발로써 수많은 개발업자들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그 결과, 이들의 광적이고 무책임한 이윤 추구 때문에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문화유산과 역사 맥락이 파괴되었다. 李鵬 총리는 <政府工作報告>에서 정신문명에 대하여 중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정신문명을 희생한 대가로 경제적인 일시적 발전을 얻을 수는 없다.”(中國文物報, 1995.3.26)

그러나 경제라고 하는 지렛대의 움직임 하에서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 개선'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주요한 당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은 있으되 의존할 수 없으며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北京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종종 출현하였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대다수 문물과 역사 환경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하나의 좋은 실례는 현재 이미 준공 단계에 들어선 대형 백화점 동방광장 일 것이다. 그것은 北京市의 중심인 東單과 長安街 사이에 있는 王府井大街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정의 총 투자액과 전체 건축 면적은 세계 건축사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建築時報, 1994.9.12). 현재 이 건물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절충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원래의 계획은 북경의 도시 맥락을 거부하는 대단히 대담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범한 대항과 위법행위는 응당히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작은 불씨들이 도화선이 되어 전체의 평원을 다 태워 버리고 말 것이다. 결국 이 사안은 법률의 존중과 억제력만이 北京의 역사 풍모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이 같은 개개의 건축활동하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행정의 거시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실행 가능한 문화 발전의 철저한 전략과 문화 사업의 발전 계획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도시내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현상들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3.2. 過去 北京都市計劃의 古城保護에 대한 基本構想問題

北京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최초의 계획은 일본제국주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1938년 建設總署가 주관하여 제정한 '北京都市計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항일 전쟁의 승리 이후, 北平公務局은 1946년 앞서 제정되었던 방안을 수정하고 '北平都市計劃大綱草案'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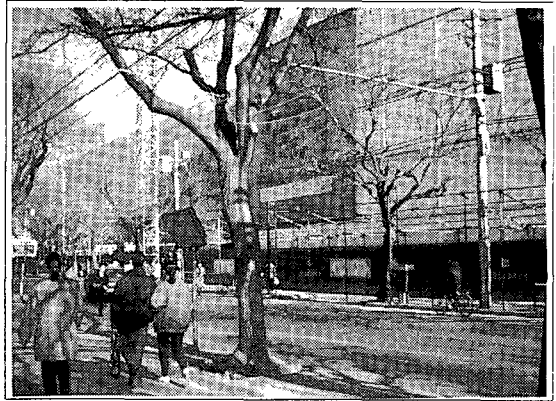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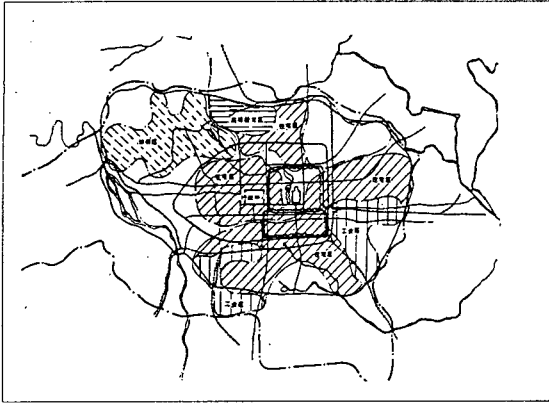


사진 3. 王府井大街에 조성중인 대형쇼핑센터 동방광장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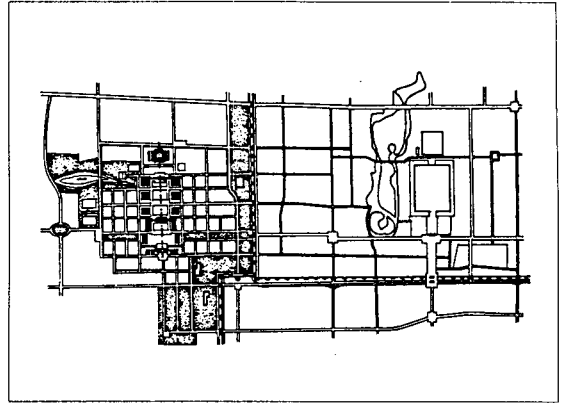
제하였다. 이 두 가지 계획안은 古都의 風貌를 보호한다는 의의로 볼 때 가장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北京을 하나의 '觀光都市'로 건설한다는 측면과 완전히 일치한다. 동시에 두 계획안 모두 北京城의 서쪽에 새로운 도시 구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左川, 1994, pp.1)

그후, 1950년 5월에 北京市都市計劃委員會가 성립되어 수도의 도시계획에 착수하였다. 이후 45년의 기간동안 北京은 전후로 6차례에 걸친 圖示總體計劃方案的 연구와 편제 작업을 진행했다⁷⁾. 그 가운데 4번의 계획이 正式文件으로 완성되어 중앙에 보고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北京의 도시 건설을 지휘하였다. 10여 년간에 걸친 文化大革命의 기간동안 도시계획이 일시적으로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都市總體計劃의 주요 내용은 舊城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전제하에서 각 방면에 걸쳐 北京의 도시 성격, 규모, 배치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당연히 권위주의적인 것이었으며 건설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지명도 있는 古都로서의 북경이 가지는 도시 특징은 총체계획에서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으며 전문 인력의 연구도 부족하였다. 결국 그러한 것은 계획의 구상에서 부차적인 것이

7) 여기에는 최근에 제정된 2000년대 북경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a) 기본토지이용과 옛성곽과의 관계



(b) 신행정구역과 옛성곽과의 관계

그림 2. 건국초기 북경시 도시계획 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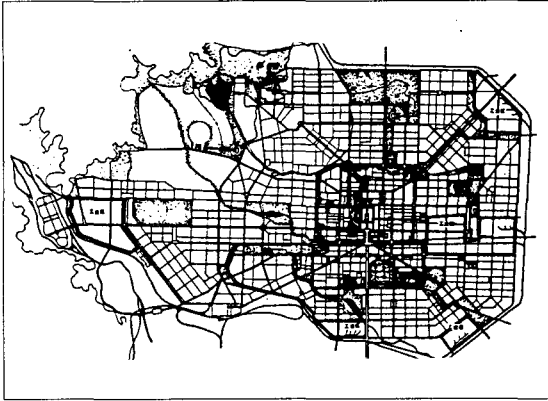
로 전략하여 억지로 삼입되었을 뿐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 방안을 설계할 때 관건이 되는 요소는 대부분 경제적인 부문이다. 당시 北京의 계획 방안도 대동소이했다. 그들이 古城의 보호를 위해서 채용했던 방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들에게 적합한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 서방자본주의 국가의 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현재는 과거의 사회주의와도 다른 '중국적 특색있는 사회주의' 국가관을 표명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서방 국가들과 다르며 특히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관리 방법, 인구 정책, 호구정책등과 같은 것이 그러하다. 따라서 국가 체계의 장단점을 고려한 保護原則의 도시계획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현대 도시의 발전 속도는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북경도 급속히 서방 도시의 모습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의 전면적인 보호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관련 부문은 보호 지구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그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작업들이 도면상의 유희 작업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는 항공측량도와 사인펜으로 개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잘 그려진 도면이나 비행기를 탄 높은 상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걸으며, 자전거나 버스, 택

시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계획시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척도를 중시해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북경은 '보호와 회복', '보호와 이용', '보호와 발전'이라는 3자간의 관계를 정확하게만 처리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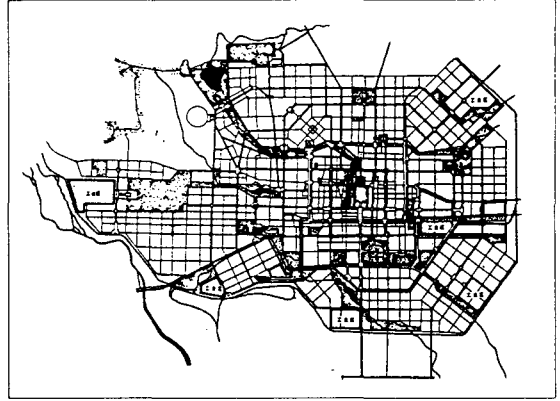
◆北京市도시계획화표◆

- 1946년 <北平都市計劃大綱草案>의 편제
- 1949년 5월 北京都市計劃委員會의 성립
- 1953년 <北京市의 改建과 擴張을 위한 계획 초안의 요점>을 제출
- 1955년 소련전문가를 초빙하여 北京計劃의 편제작업에 관한 지휘를 받음
- 1957년 北京都市建設總體計劃初步方案의 입안
- 1968년 北京都市計劃管理局이 폐쇄됨
- 1972년 北京都市計劃管理局이 정식으로 회복됨
- 1973년 10월 8일 北京市計劃局은 새로운 계획 방안을 제출함
- 1981년 11월 北京市都市計劃委員會의 성립
- 1982년 3월 北京市都市計劃委員會는 새로운 계획방안을 제출함
- 1983년 北京市總體計劃方案의 편제
- 1985년 北京都市地建築高度制限에 관한 규정 제정
- 1987년 北京都市地建築高度制限에 관한 규정 조정
- 1989년 12월 26일 中華人民共和國 도시계획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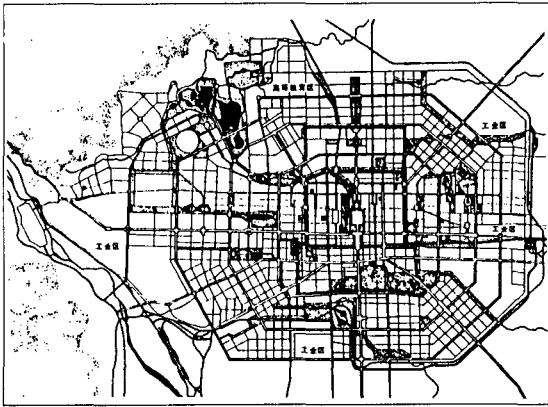
그림 3. 1953년에 제정된 북경시 총체계획도



(a) 甲方案



(b) 乙方案



(c) 1954년의 수정안

공포

1991년 北京市 정부는 總體計劃의 수정작업을 진행하도록 결정함

1993년 10월 국무원은 새로운 北京總體計劃案에 대하여 동의함

3.3. 現代建築의 傳統建築模倣心理에 대한 意識研究問題

仿古建築⁸⁾ 혹은 大屋頂建築의 논쟁은 이미 중국건축계의 오래된 화제거리였다⁹⁾. 어떤 경우

에는 이러한 건축 형식이 민족 형식, 혹은 복고주의 형식이라고 불려졌으며 어떤 경우는 절충주의, 혹은 고전주의로 불려지기도 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국의 仿古建築問題는 다양한 명칭의 사용과 그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건축가, 기술관료, 민중 등을 포괄하는 중국인들 자신의 이러한 건축 형태에 대한 의식 형태 문제이다. 관련 전문가나 건축평론가들 이외에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건축에 대하여 대부분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대옥정의 고층건물이야말로 중국적인 현대화, 선진화를 대표하는 표식이라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의 主宰者인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 존재하는 모종의 의기투합에다가 정부 관료의 현상에 대한 묵인은 저질의 仿古建築이 대량으로 출현시키고 있다.

北京은 최근 몇 년간 관광 호텔과 국가기관건물을 위주로 하는 대형 건축물이 속속 준공되었다. 이러한 건축물이 北京의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 대옥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강력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건축물은 그칠 줄로

8) 방고건축은 중국전통건축의 형상이나 수법을 모방하여 현대 건축에 적용한 건축물을 지칭한다. 이러한 용어는 시대에 따라 민족 건축, 대옥정건축, 복고주의 건축, 절충주의 건축, 고전주의 건축이라고도 불렸다.

9) 중국이 근대화된 이후, 서양식 건축 교육을 받고 돌아온 중국의 건축가들 내지는 중국에 와서 건축 활동을 했던 서방의 건축가들이 중국 전통 건축을 모방하여 작품 활동을 하던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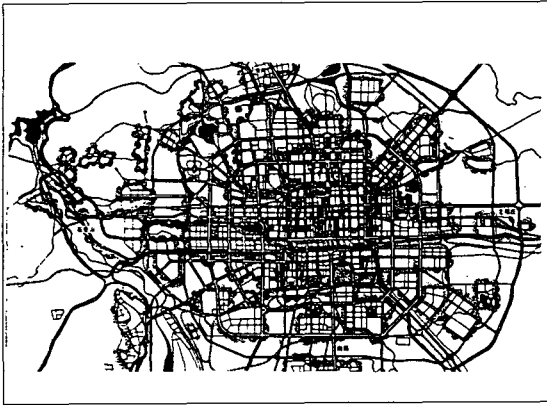


그림 4. 1958년 9월에 제출된 북경시 총체 계획도

모르고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仿古建築의 설계를 긍정적인 문화 형식의 하나로 바라보고 그것을 정상적인 체도로 유도하는 길이다. 따라서 마구잡이식의 仿古建築을 방지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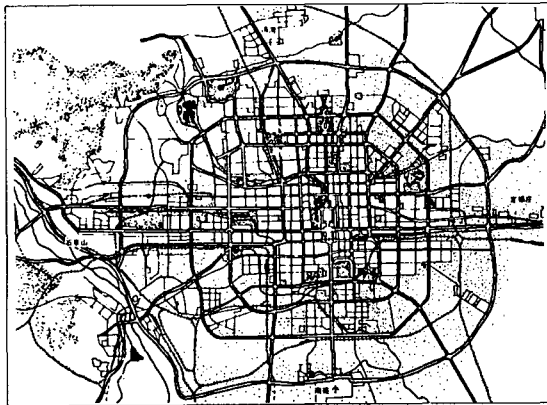


그림 5. 1973년에 제출된 북경시 총체 계획도

- ① 고건축 전문가가 참여한 仿古建築작품에 대한 심의제도수립
- ② 건축주를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적절한 건축미학교육의 강화
- ③ 설계 조직과 시공 조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건축강좌 개설

3.4. 문물 건축에 대한 사용 가치관의 문제

文物建築의 재활용은 그 자체의 보존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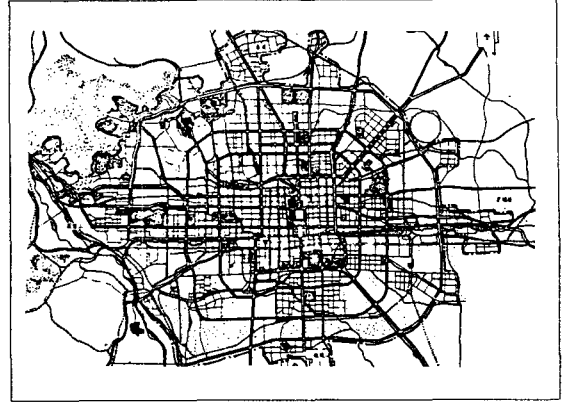


그림 6. 1982년에 제출된 북경시 총체 계획도

전체적인 역사성이 갖는 의의 이외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변의 환경으로 하여금 사람들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소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러한 수법은 본래 특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으로 하여금 단지 훼손되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성 건축의 새로운 생명력을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으로 하여금 제2의 청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關華山, 1944, pp. 107)간단히 말해서 재활용¹⁰⁾은 바로 옛날의 건축을 새롭게 이용하는 행위이다.

1992년의 통계 숫자에 의하면 北京地區에 있는 文物保護單位¹¹⁾는 모두 986개소이다. 그 가운데 市級 이상의 보호 단위는 209개소이고 區縣級 이상은 777개소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인류문화유산도 3개소나 있다(呂舟, 1994,

10) 재활용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것들로는 整修(Renovation), 修復(Rehabilitation), 改造(Remodeling), 再循環(Recycling), 改修(Retrofitting), 環境重塑(Environmental Retrieval), 延長使用(Extended Use), 再生(Reborn), 適應性再使用(Adaptive Reuse) 등이 있다. 각 단어들에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정도와 의미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옛건물의 새로운 이용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개념은 재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1) 중국의 문물보호단위는 국무원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점급,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 정부에서 지정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급, 현, 자치현, 시의 인민 정부에서 지정하는 현, 자치현, 시급의 3등급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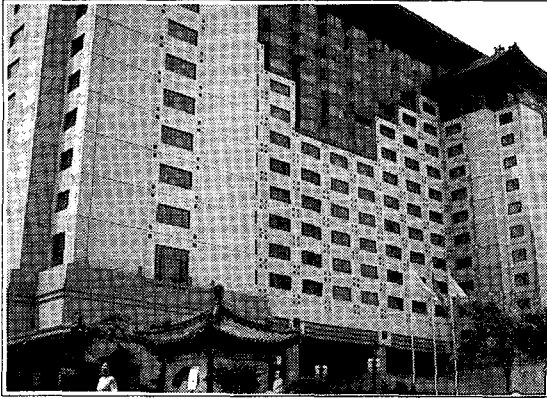


사진 4. 大屋頂의 형식을 취한 五星호텔 王府飯店

pp.72). 이러한 문물은 北京의 歷史風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현재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물 건축은 과거의 경제 조건하에서 공장이나 기관(주로 박물관, 전람관, 도서관, 문화 중심 등등), 군부대, 교육기관 내지는 고급간부의 개인적인 용도로 점유되어 장기간 사용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진귀한 문물 건축은 응당히 있어야 할 보호와 수리를 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파괴된 것이 적지 않았다. 또한 어떤 경우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개방조차 되지 않았다. 城鄉建設環境保護部는 1983년 공포한 <歷史文化名城計劃作業에 관한 통지>에서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지적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

중국 건축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분류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 건축, 종교 건축, 공공 건축, 공업 건축 등과 같은 분류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분류 개념은 중국 고전 건축에서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것이었다. 또 강조하는 것은 중국 건축은 어떤 유형의 건축물이든지 평면의 배치나 입면의 형식이 대동소이하며 변화가 적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고건축이 당시 사용 기능상 고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 공간 요구의 변천, 가구와 설비의 갱신 등은 문물 건축의 재사

용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현 상황의 사용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문물 건축의 역사적 사실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경의 故宮 안에는 太廟가 있다. 현재 그것은 단지 외관만을 보존하고 있을 뿐이고 내부는 이미 태묘와는 무관한 勞動人民文化宮으로 개조되었다. 그러므로 문물 건축 내부의 역사적 斷絶과 空洞化를 낳았으며 자체가 가지고 있던 사실성은 찾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례는 北京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재이용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北京의 古城風貌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관련 부문이 문물 건축의 사용 가치관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대다수 중요한 문물 건축이나 문물 건축 군의 원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문물 건축을 재 사용할 때 반드시 문물 건축 자체의 특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만 한다.

4. 結語-空間形式의 實踐으로써 古城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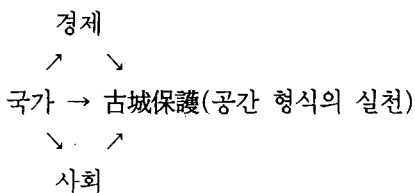
명대의 조원가인 계성은 자신의 저서인 《園冶》에서 중국인의 건축 태도에 관하여 많은 분석을 하였다. 그의 논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람과 사물의 수명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 사물의 경우, 천년을 이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100세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만들어 낸 환경은 자신들이 사용 가능한 기간과 서로 상응하면 충분하다. 어째서 후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창조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물며 그들은 우리가 대신 만들어 준비한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대단히 현실적인 태도이다. 城鄉의 건설은 영원한 것으로 완성의 그날은 없

다. 그것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일종의 새로운 신진대사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李允鈺, 1982, pp.25). 필자도 이러한 점에 완전히 동의하며 역사 도시의 보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가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고에 집착하고 있으며 쉽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게다가 몇 년간 중국의 일반 사람들은 확실적인 정치활동과 통계 숫자로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숙달되어 있었다. 동일한 현상이 정부 주도의 계획에서도 종종 출현했었다.

이처럼 古城保護의 문제 제기, 입안, 집행은 종종 국가의 공공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동태적인 사회, 정치적 과정에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내고 특정한 지역을 보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인식하는 중요한 시각이다. 그리고 정책과 집행의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은 동태적인 사회, 정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나름대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서로 다른 패턴을 찾아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제도적인 성향의 법률, 경제적인 도구의 학습과 선택을 포괄하는 古城保護의 기술은 심도 있는 지식과 이론적인 기초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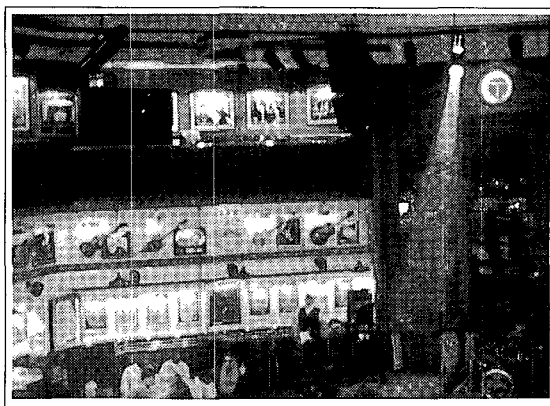
古城保護에 관련된 메카니즘

결국, 건강하고 조화롭게 北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과 발전에 관한 정확한 논점을 확립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시켜야 하며, 건축물과 같은 물질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상응하는 정신문명을 건설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중국의 主文化에 대한 보호를 확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北京의 歷史風貌를 명확하게 이끌고 나가야만 한다. 아울러 각양각색의 反文化가 범람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이러한 문화가 조성하는 危害한 것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보존의 지식과 사회 지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완벽한 메커니즘이 건립되어 보존 작업의 집행에 필요한 사회, 경제, 정치적 과정을 확립할 수 있다면 북경의 古城保護, 歷史脈絡의 유지는 몽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미래의 현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5.(a) 전통적인 공연이 벌어지는 老舍茶馆의 정문



(b)서구의 현문화가 한창벌어지는 북경의 Hardrock Cafe의 내부

“현대화의 최후의 승리는 비현대적인 것의 소멸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현대 사회 속에서 보존되고 재전되는 것이다.”

-MacCannell의 《The Turist》에서-

참고 문헌

- 李允鈺, 1982, 《華夏意匠》, 廣角鏡出版社, 香港
- 中國歷史文化名城研究會, 1987, 《中國歷史文化名城保護與發展》, 文物出版社, 北京
- 國家文物事業管理局編, 《新中國文物法規選篇》, 文物出版社, 北京
- 段炳仁, 1989, 《北京市改革10年》, 北京出版社, 北京
- 李雄飛, 1989, 《城市規劃與古建築保護》,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 陳志華, 1992a, 《保護文物建築和歷史地段的國際文獻》, 博遠出版有限公司, 臺北
- , 1992b, 《中華人民共和國法律規範性解釋集成》, 吉林人民出版社, 長春
- 夏鑄九, 1992, 《古市街與傳統聚落保存方式之研究》, 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 臺北
- 古都研究學會, 1993, 《中國古都研究》 第8輯, 中國書店, 北京
- 吳良鏞, 1994, 《北京舊城與菊兒胡同》,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 關華山, 1994, 《臺灣中部地區古蹟使用調查與評估研究報告》, 東海大學建築研究所, 臺中
- 鮑世行, 顧孟潮 主編, 1994, 《城市學與山水城市》,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 韓國建築歷史學會, 1994, 《東아시아 歷史都市의 傳統과 現代-서울과 北京》(유인물), 서울 국제학술토론회
- Donald Appleyard, 1979, 《The Conservation of European Cities》, M.I.T. Press

The Procedure of China's Old Castles Reservation Movement and Beijing's City Plan

Han, Dong Soo
(Tsinghua University)

From the early 1980's, when Chinese government decided to take an Open-Policy. Chinese society faced a new turning point to be changed from traditional-society to modern-society. As a result her outstanding phenomena of civilization is to be seen in many points, like the oid styled traditional street is rapidly replaced by the modernized high-rise buildings. Like the other cities in China, Beijing(北京) also is on the step of modernization, and it's changing speed is faster time by time. In this paper, I'll discuss about Beijing's policy of reservation of Old castles(古城), some problems what they have though the procedure of China's Movement of Old Castle Reservation(古城保護運動). And through this case study, I'd like to focus on the way how we solve some problems what we have now concerning to the 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ities.